



가족, 간병인, 간호사가 인지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도

조남옥¹⁾ · 고성희²⁾ · 김춘길³⁾ · 양 수⁴⁾ · 오경옥⁵⁾ · 이숙자⁶⁾ · 정유진⁷⁾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이후 200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5%로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2006). 80세이상 후기 노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문제는 치료보다는 장기요양과 관리가 필요한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들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유수정, 김신미, 이윤정, 2004).

실제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한 정경희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73.8%였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43.3%에서 일상생활 수행의 제한이 있었고, 수발이 필요한 대상 중 63.1%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수발을 하는 경우에도 수발자의 64.2%는 수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중증심신장애가 있는 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간병인력 및 간병비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제도로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간협신보,

08.4.24)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력으로 서비스 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 그리고 간병전문 인력이 요구된다(장병원, 2004). 이 중 간병전문인력인 노인요양보호사는 수발보험제도에서 수발요원(home helper)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활동지원과 일상가사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의 결과(조우현, 2006)에서 보면 재가 수발서비스 실시유형에서 방문간병수발서비스의 비율이 전체 846명 중 419명이 이용하여 49.5%의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간병수발과 방문간호, 간병수발과 주간보호의 서비스 순이었다.

시설에서도 노인의 옆에서 간병과 일상가사지원은 노인요양보호사가 담당하고 있어, 이들 노인요양보호사의 질향상이 노인과 가족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여러단체 혹은 기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로 노인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노인요양보호사의 질적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고령화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거쳐 배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과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간협신보, 07.11.22).

보건복지부는 2008년 6월말까지 3만 4천명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요양보험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

주요어 : 치매, 뇌졸중, 노인, 요양보호사, 교육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kimcg@hallym.ac.kr)

4)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7) 춘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투고일: 2008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3일

작하게 할 계획이며, 2008년 2월부터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각 대학 평생교육원 등 340개 교육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안심생활, 2008)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간호분야 국내연구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이경자등, 2004)이나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노인간호교육의 필요성(박선영, 박영숙, 2007) 혹은 노인에 대한 학생의 태도(백성희, 2007)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연구도 종합병원 입원환자 대상의 이용양상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주영희, 1994), 간병인실태와 간병활동(송명순, 1992), 역할수행정도(최연옥, 2002) 또는 만족도(전귀숙, 2001)조사가 있었다. 간병인 교육에 대해서는 병원중심의 간병인 간병업무와 교육실태(최명희, 2005)가 있었을 뿐이며, 노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최항석(2006)의 간병인 실태와 간병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시 특히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에게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대비하여 한국치매협회 주관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한 본 연구팀은 교육과정에 포함된 주요내용들에 대해 실제로 치매 또는 뇌졸중노인을 돌보는 이들의 중요성 인지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나 뇌졸중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활성화될 노인요양보호사의 교육내용 중 특히 중요하게 인지되는 교육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재가와 시설에서 간병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노인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 중 특히 중요하게 인지되는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이들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족, 간병인, 간호사가 인지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조사, 비교한다.
- 가족, 간병인, 간호사가 인지하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을 조사, 비교한다.

용어정의

● 노인요양보호사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재가 또는 시설에서 대상노인에게 신체활동수발과 일상가사지원을 하는 전문간병인력을 말한다(안심생활, 2008).

● 요양보호사 활동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 기준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을 말한다(안심생활, 2008).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과정

본 연구는 한국치매협회 주관으로 전국의 치매간호 전공 간호학 교수 7명이 팀을 이뤄 2006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가정 또는 시설에서 치매 또는 뇌졸중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과과정의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비교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강원, 충청, 호남지역의 치매, 뇌졸중 환자 가족과 이들 노인환자를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간병인과 간호사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한 가족 112명, 간병인 98명, 간호사 86명 총 2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도

연구팀이 모두 5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의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제시한 기본 틀을 토대로 수발 및 가사지원, 간호 보조, 의학기초, 소양교육 및 노인복지의 5영역 43문항의 교육내용에 대해 노인요양보호사의 교육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 항목별로 '아니다' 0점, '약간 그렇다' 1점, '상당히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배정한 4점 척도이다. 도구의 타당도는 7명으로 구성된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들의 5차례 회의를 통한 내용 검증외에 치매 관련 전문의 1명과 노인간호 관련 간호학 교수 2명에게 내용을 검토

받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58 이었다.

●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

기관별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연구팀이 5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제시된 기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치매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너싱홈의 4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1기관, 재가시설로는 위상노인가정,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단기보호시설의 3기관, 총 8기관에 대해 ‘아니다’ 0점, ‘약간 필요’ 1점, ‘상당히 필요’ 2점, ‘아주 필요’ 3점으로 배정한 4점 척도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 사이에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주어,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10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14부를 제외하고 가족 112명, 간호사 86명, 간병인 98명을 포함한 총 296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분석을, 각 영역별 활동내용과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가족, 간병인, 간호사 3집단간 교육의 중요도 정도와 기관별로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정도에 대한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가족은 40대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1.4%로, 50대가 전체의 61.6%를 차지하였다. 20대, 30대도 있지만 60대와 70대가 각각 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47.8세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40대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3.7%로 40, 50대가 전체의 80.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45.6세였다. 간호사는 20대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7.9%였으며 평균 31.7세였다. 대상자 전체의 평균연령은 42.4세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족은 호남지역(44.6%), 강원지역(32.2%), 충청지역도(23.2%) 순이었으며, 간병인은 호남지역(43.9%), 강원지역(30.6%), 충청지역(25.5%)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사는 호남지역(59.3%), 충청지역(23.3%), 강원지역(17.4%)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학력은 가족은 고졸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3.3%의 대졸이었으나 중졸도 10.7%가 있었고 한글해독과 초등졸도 각각 8.9%의 분포를 보였다. 간병인은 전체의 62.2%가 고졸이었으며, 다음은 대졸이 18.4%, 중졸 13.2%, 초등졸이 6.1% 순이었다. 간호사는 100% 대졸이었으며, 이중 81.4%는 전문대졸, 12.8%는 대졸자이며, 5.8%는 대학원졸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amily	NAs	RNs
		n(%)	n(%)	n(%)
Age(yrs)	20-29	8(7.1)	5(5.1)	46(53.5)
	30-39	15(13.4)	13(13.3)	24(27.9)
	40-49	45(40.2)	46(46.9)	13(15.1)
	50-59	24(21.4)	33(33.7)	3(3.5)
	60-69	10(8.9)	1(1.0)	-
	70-79	10(8.9)	-	-
Residential district	Gangwon-do	36(32.2)	30(30.6)	15(17.4)
	Jeolla-do	50(44.6)	43(43.9)	51(59.3)
	Chungcheong-do	26(23.2)	25(25.5)	20(23.3)
Education	Comprehension of hangeul	10(8.9)	-	-
	Primary	10(8.9)	6(6.1)	-
	Milddle	12(10.7)	13(13.2)	-
	High	42(37.5)	61(62.2)	-
	College	38(33.3)	18(18.4)	86(100.0)
Marrital status	Married	94(83.9)	78(79.6)	38(44.2)
	Not married	14(12.5)	8(8.2)	47(54.7)
	Bereavement	3(2.7)	8(8.2)	-
	Divorced	1(0.9)	4(4.1)	1(1.2)
Total		112(100.0)	98(100.0)	86(100.0)

LTCNAs :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NAs : nurses' aids, RNs: registered nurses

결혼상태는 가족과 간병인은 각각 83.9%와 79.6%가 기혼자였으나 간호사는 44.2%는 기혼이고, 54.7%는 미혼이었다.

치매 또는 뇌졸중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간호사에게 모두 5영역 43문항별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9항목으로 구성된 수발 및 가사지원영역에서는 3집단 모두 노인요양보호사의 교육에서 전체평균 2.3 이상의 결과를 보인 항목은 ‘식사보조’, ‘배변보조’, ‘배뇨보조’, ‘시트교환’,

가족, 간병인, 간호사가 인지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도 비교

<Table 2>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 perceived by caregivers of the elderly

Role	Family	NAs	RNs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upport for personal hygiene and household chores	Assistance at table	2.18±.74	2.46±.66	2.38±.77	2.33±.73
	Snack assistance	2.04±.83	2.31±.71	2.24±.88	2.19±.81
	Defecation assistance	2.29±.72	2.49±.63	2.38±.75	2.38±.70
	Urination assistance	2.26±.73	2.51±.63	2.37±.77	2.37±.72
	Sheet change	2.15±.84	2.54±.61	2.35±.81	2.34±.78
	Bed making	2.15±.84	2.48±.68	2.34±.76	2.31±.77
	Position change	2.30±.71	2.49±.69	2.37±.65	2.39±.69
	ROM exercise	1.86±.96	1.87±1.03	1.67±.94	1.81±.98
	Transport	2.10±.87	2.08±.93	2.09±.78	2.09±.86
	Wheel chair	2.00±.90	2.19±.85	2.05±.85	2.08±.87
	Orthosis	1.97±.92	2.00±.96	1.93±.85	1.97±.91
	Bathing	2.24±.70	2.56±.66	2.35±.85	2.38±.75
	Personal hygiene(Tooth-brushing, face washing, hair shampoo)	2.21±.75	2.50±.71	2.37±.78	2.35±.75
	Back massage	1.96±.90	1.98±1.03	1.97±.94	1.97±.95
	Clothing and undressing	2.06±.83	2.48±.68	2.15±.93	2.23±.83
	Grooming	1.74±1.01	2.07±.94	1.83±.98	1.87±.99
	Cognitive problem care (memory, judgement, calculation)	1.79±.92	1.95±.98	1.51±.90	1.76±.95
	Behavioral problem care (wandering, delusion, aggressive behavior)	1.89±.90	2.10±.88	1.79±.94	1.93±.91
	Environmental control	1.82±.93	2.09±.87	2.08±.82	1.99±.89
	Nursing assistance	Tube-feeding assistance	1.83±.95	1.84±1.03	1.62±1.02
Medication assistance		1.89±.85	1.79±1.01	1.64±.98	1.78±.95
Suction assistance		1.90±.88	1.65±1.00	1.65±.94	1.75±.94
Soar and wound care		1.98±.87	1.91±1.03	1.58±.96	1.84±.96
Vital sign check		1.80±.89	1.78±.98	1.21±1.14	1.62±1.03
Basic medical knowledge	Understanding of aging	2.10±.75	2.18±.77	2.10±.88	2.13±.79
	Understanding of elderly and patient with dementia	2.24±.75	2.36±.69	2.27±.79	2.29±.74
	Understanding of geriatric disease (stroke, arthritis, hospice)	2.29±.76	2.34±.81	2.16±.82	2.27±.80
	First aid	2.13±.85	1.97±.96	1.91±.98	2.01±.93
Understanding of rehabilitation therapy	2.15±.85	2.07±.76	2.00±.85	2.08±.82	
Grounding education	Roles of LTCNAs	2.40±.72	2.42±.72	2.43±.71	2.42±.71
	Attitudes in elderly care	2.46±.68	2.61±.64	2.60±.58	2.55±.64
	Relationship with family	2.15±.80	2.29±.81	2.50±.63	2.30±.77
	Professional ethics	2.34±.74	2.39±.78	2.51±.65	2.41±.73
	Patients' right	2.31±.72	2.35±.73	2.55±.63	2.39±.71
	Communication with elderly	2.32±.66	2.45±.68	2.56±.59	2.43±.65
	Communication with RNs	2.33±.68	2.29±.66	2.58±.60	2.39±.66
	Communication with family	2.22±.71	2.16±.73	2.47±.65	2.27±.71
Stress management	2.12±.81	2.21±.82	2.37±.67	2.22±.78	
Elderly welfare	Understanding of elderly welfare	2.19±.80	2.18±.84	2.14±.81	2.17±.82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2.19±.78	1.99±.90	2.02±.84	2.07±.84
	Health and welfare system and liaison	2.05±.79	1.92±.89	1.84±.93	1.95±.87
	Detecting and reporting abnormal sign	2.29±.74	2.22±.82	2.13±.84	2.22±.80
	Home visit plans and documentation	1.86±.99	1.74±.85	1.65±1.00	1.76±.95

LTCNAs :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NAs : nurses' aids, RNs: registered nurses

‘침상관리’, ‘체위변경’, ‘목욕’과 ‘이닦기, 세안, 세발등의 개인 위생’의 8항목이었으며, 이중 체위변경이 2.3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인지장애 간병’과 ‘문제행동 간병’은 간병인에서 가족이나 간호사에 비해 다소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평균 1.76과 1.93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의 중요도 면에서 인지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가족은 ‘체위변경’만 평균 2.30점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간병인은 ‘목욕’이 2.5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2.54점의 ‘시트교환’이었으며 ‘배뇨보조’도 2.51점, ‘개인위생’도 2.50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간호사는 ‘식사보조’와 ‘배변보조’를 2.3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은 ‘배뇨보조’, ‘체위변경’, ‘개인위생’이 각각 2.37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된 간호보조 영역에서는 3집단 전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2.0 이하의 평가를 내렸다. 상대적으로 가족의 평균이 높고, 다음이 간병인 순이었으며, 간호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가를 보면 가족은 ‘욕창 및 상처보조’와 ‘흡인보조’를 1.98점과 1.90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간병인도 ‘욕창 및 상처보조’를 1.91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간호사는 ‘욕창 및 상처보조’와 ‘흡인보조’를 1.58점과 1.65점으로 평가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된 의학기초에서도 3집단 전체적으로 2.30 이상의 평가를 내린 항목은 없으나 ‘노인 및 치매대상자 이해’와 ‘중풍, 관절염, 호스피스 등 노인성질환 이해’가 각각 2.29점과 2.27점으로 교육의 중요성 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집단별로 보면 간병인은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으로 ‘노인 및 치매대상자 이해’와 ‘중풍, 관절염, 호스피스 등 노인성질환 이해’에 대해 각각 2.36과 2.34로 평가하였고, 간호사는 각각 2.27과 2.16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가족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 이해’에 대해서는 2.24로, 그리고 ‘중풍, 관절염, 호스피스 등 노인성질환 이해’에 대해서는 2.29로 평가하여 간병인과 간호사에 비해 치매에 대한 이해보다는 중풍,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9문항으로 구성된 소양교육에서는 3집단 모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 면에서 높게 평가하였는데, ‘요양보호사의 역할이해’,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시 주의점’, ‘직업윤리’, ‘환자의 권리이해’, ‘노인과의 의사소통’,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의 7문항이 평균 2.3 이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가 2.55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가족 역시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를 2.46점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

었으며, 다음은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이해’가 2.40점이었으며, ‘스트레스 관리’가 2.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병인도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가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한 정도를 2.61점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다음이 ‘노인과의 의사소통’과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이해’가 각각 2.45점과 2.42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간호사 역시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를 2.6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은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이 2.58, ‘노인과의 의사소통’이 2.56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호사들은 노인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권리이해’를 하는 것에 2.55로 중요함을 높이 평가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에서는 3집단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준 것은 ‘이상상태 파악 및 보고’에 2.22로 평가하였으며, 다음이 ‘노인복지이해’ 항목에 2.17로 평가하였으며, ‘방문계획 수립 및 기록’은 1.76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가를 보면 가족과 간병인은 ‘이상상태 파악 및 보고’를 각각 2.29점과 2.2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간호사는 ‘노인복지이해’를 2.14점으로, 그리고 ‘이상상태 파악 및 보고’는 2.13점으로 평가하였다.

가족과 간병인 그리고 간호사집단별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를 영역별로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발 및 가사지원 영역은 간병인에서 평균 43.15점으로 가장 필요한 역할로 평가받았으며, 다음은 간호사와 가족의 순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간호보조 영역에서는 가족의 필요성 인정이 9.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간병인, 간호사의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의학기초영역에서는 간병인의 평가가 10.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족과 간호사순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교육영역에서는 간호사가 22.60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간병인과 가족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노인복지영역에서는 가족이 10.57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이 간병인과 간호사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각영역의 항목으로 나눈 평균으로 비교하였을 때 가족집단에서는 소양교육이 평균 2.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평균 2.18의 의학기초, 2.11의 노인복지, 2.05의 수발 및 가사지원이었고, 간호보조영역이 1.88로 가장 낮았다.

간병인집단에서는 소양교육의 중요성이 평균 2.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수발 및 가사지원영역으로 2.27점, 의학기초 2.18점, 노인복지의 2.01점이었고 간호보조가 역시 1.79으

<Table 3> Difference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education to LTCNAs among groups

Areas	Group	N	Mean	SD	F	p
Support for personal hygiene and household chores	Family	112	39.02(2.05)	12.06	3.648	.027
	NAs	98	43.15(2.27)	10.38		
	RNs	86	40.23(2.12)	11.14		
Nursing assistance	Family	112	9.41(1.88)	3.64	4.538	.011
	NAs	98	8.96(1.79)	4.39		
	RNs	86	7.70(1.54)	4.13		
Basic medical knowledge	Family	112	10.90(2.18)	3.52	.553	.576
	NAs	98	10.92(2.18)	3.34		
	RNs	86	10.44(2.09)	3.57		
Grounding education	Family	112	20.65(2.29)	5.57	3.324	.037
	NAs	98	21.16(2.35)	5.18		
	RNs	86	22.60(2.51)	5.01		
Welfare for elderly	Family	112	10.57(2.11)	3.43	1.291	.277
	NAs	98	10.06(2.01)	3.46		
	RNs	86	9.78(1.96)	3.77		

LTCNAs :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NAs : nurses' aids, RNs: registered nurses

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간호사그룹에서도 요양보호사에게 소양교육영역 교육의 필요성이 평균 2.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수발 및 가사지원으로 2.12점, 의학기초가 2.09점, 노인복지가 1.96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보조가 1.5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

대상자들이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응답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시설의 영역별로는 3집단 모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재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3집단 전체가 응답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2.50점의 노인전문병원, 2.48점의 치매병원, 2.34점의 요양시설, 외상노인가정의 2.31

점, 2.10점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7점의 양로시설 순이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1.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의 집단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가족의 경우에는 8종류의 기관 모두에서 2.0 이상의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간병인은 치매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너싱홈, 양로시설, 외상노인가정,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7개 기관에서, 그리고 간호사는 치매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너싱홈, 외상노인가정의 5개 기관에서 2.0 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그룹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평균 2.48점으로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다음은 2.46점의 치매병원, 2.45점의 외상노인가정, 2.38점의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각각 2.21점의 요양시설과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집단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평균 2.71점으로 1위였고, 다음은 2.63점의 노인전문병원, 2.58점의 치매병원, 2.56점의 요양시설 그리고 2.37점의 외상노인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집단에서는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

<Table 4> Institutions requiring LTCNAs' activities & difference among groups

Institutions	Family	NAs	RNs	Total	F	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 Dementia hospital	2.46±.68	2.58±.61	2.41±.69	2.48±.66	1.753	.175
2. Special facilities for elderly care	2.48±.66	2.71±.54	2.42±.69	2.54±.64	5.789	.003
3. Special hospital for elderly	2.38±.80	2.63±.63	2.51±.66	2.50±.71	3.236	.041
4. Nursing home	2.21±.79	2.56±.63	2.24±.78	2.34±.75	6.782	.001
5. Home for the aged	2.15±.81	2.11±.82	1.93±.72	2.07±.79	2.094	.125
6. Family with bed-ridden elders	2.45±.73	2.37±.75	2.07±.68	2.31±.74	7.009	.001
7. Home helper service center	2.21±.81	2.20±.79	1.84±.82	2.10±.82	6.508	.002
8. Short stay care facilities	2.09±.77	1.95±.78	1.85±.83	1.97±.79	2.321	.100

LTCNAs :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NAs : nurses' aids, RNs: registered nurses

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평균 2.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42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2.41점의 치매병원, 2.24점의 요양시설 그리고 2.07점의 외상노인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로 가족, 간병인, 간호사집단간에 활동이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너싱홈, 외상노인가정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간병인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고, 다음이 가족, 간호사 순이었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노인전문병원 역시 간병인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간호사, 가족의 순이었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너싱홈은 간병인집단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간호사와 가족의 순이었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외상노인가정은 가족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다음이 간병인, 간호사 순이었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가족과 간병인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간호사집단이었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논 의

본 연구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간호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제 재가 또는 시설에서 치매 또는 뇌졸중 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인지되는 내용과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기대되는 기관에 대해 조사·비교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목적은 고령이나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들 노인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하는 것은 노인간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는 치매나 뇌졸중 노인을 돌보는데 제도적 지원이 요청됨이 제시되었다. 즉, 잘못된 인간-환경 상호작용으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아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뿐(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과 오진주, 1994) 아니라 심한 경우 시설입소를 결정하게 되며,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정기간 치매노인을 돌보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휴식간호로 나타났다(조남옥, 1996). 또한 뇌졸중 환자의 70~75%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의 장애를 지닌 채 삶을 살아야 하므로,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사회적 돌봄이 요구된다(Dorsey & Vaca, 1998; Penrod, Kane, Kane, & Finch, 1995; Stewart, Doble, Hart, Lanille, & MacPherson, 1998).

이처럼 치매나 뇌졸중이 있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미약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김금순, 서문자, 조남옥과 김인자(2001)의 연구에서 재가와상노인들이 받은 간호 및 복지서비스 수혜상태를 조사한 결과 간호서비스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로 83.8%를 보였으며, 구강약물치료가 17.3%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중에서는 가정도우미가 15.7%, 이동목욕의 13.1% 순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드러난 서비스 제공상의 문제점은 노인의 기능상태가 나빠졌음에도 서비스는 더 많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실시로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서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정경희, 조애연, 오영희, 변재관과 문현상(1998)의 조사에서도 외상가구원이 지각한 노인의 외상원인으로는 질병이 83.6%였으며, 질병 중에서는 순환기계 질환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신 및 행동장애의 24.9%였다. 이 연구에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으나 가사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 41.3%로 나타나 재가방문 서비스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의 결과(조우현, 2006)에서도 재가노인서비스 중 방문간병수발 서비스의 비율이 전체의 49.5%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여 방문간병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외상노인 가족들이 노인요양보호사 요구가 높았던 점과 일부 상통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 간병인, 간호사 모두 '노인 및 치매대상자 이해'와 '중풍, 관절염, 호스피스 등 노인성 질병이해'를,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 환자 가족과 간호사의 교육요구를 비교한 성기연(2005)의 연구에서 환자가족과 간호사 모두 질병에 관한 지식영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수발 및 가사지원 영역 중에서는 그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들은 '체위변경'과 '배변보조' '배뇨

보조'를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실제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인그룹과 간호사그룹은 이들 활동 외에 '목욕' '개인위생' '옷 입고 벗기' 등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성기연(2005)의 연구에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법,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서만 높았고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 적절한 자세와 체위변경, 배뇨문제관리법은 간호사에게서만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절개 간호방법 심리적 안정을 얻는 법 등은 보호자 교육요구도에서 낮았고, 마사지, 침술, 민간요법 등의 작용과 효과는 간호사의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박효선(1998)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가족은 기관절개관 관리, 비위관 관리 및 위관관리, 재할 및 운동과 관련된 관리, 응급상황관리, 배뇨관리 및 욕창관리 등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는 '흡인보조'나 '욕창 및 상처보조'와 같은 간호보조활동에 대해서는 3그룹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가족에 비해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서비스는 보조로서의 요양보호사보다는 간호사 등 다른 요원의 역할로 주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환자의 가족들은 영양, 위생, 배설, 환경관리, 일상생활 동작과 운동 돕기 등 신체적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 특별히 환자를 드는 것, 목욕, 이송, 실금의 관리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 간호활동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족은 가정에서 의료인을 대신하여 치료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환자의 신체적 문제를 비롯한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성기연(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연환, 유수정과 송미순(1999)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가족은 환자간호에 필요한 정보 및 간호술 중에서 마비간호에 대한 요구가 97%로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 가족들은 체위변경의 필요성은 높았지만, 관절운동이나 이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 가족들이 뇌졸중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 가족도 포함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치매노인과 뇌졸중 노인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요양시설 거주 노인이 지각한 간호요구를 조사한 양윤정과 김정희(2007)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신체적 간호요구 부분에서는 '몸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것'과 '움직임이 불편할 때 부축해 주는 것'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간병인의 활동내용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청결, 식사돕기, 배설 등 신체 간호의 일부뿐만 아니라 관장, 침상목욕, 흡인간호, 위관영양 등 간호지

식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최항석, 2006; 송명순, 1992), 본 연구결과 간병인들은 '목욕' '개인위생' '식사보조' '배변 보조' '배뇨보조'는 높지만, '흡인보조' 나 '위관영양보조'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경험한 간병인의 업무실태에 대한 조사로서 욕창, 개인위생, 체위변경, 응급처치, 비강흡인에 대하여 간병인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장옥자(2003)의 지적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 간병인, 간호사 모두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이 지각한 간호요구를 조사한 양윤정과 김정희(2007)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평소에 같이 있어주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좋았으며(Ragan & Bowen, 2001),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대상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을 돌보는 간호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한 백성희(2007)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노인 돌봄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간호사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태도로 '노인을 이해'하고 '수용적'이며, '노인에 대한 존경심' 등이 중요하다고 한 송미순등(2003)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노인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노인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들이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응답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평균 2.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2.50점의 노인전문병원, 2.48점의 치매병원, 2.34점의 너싱홈, 외상노인가정의 2.31점, 2.10점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7점의 양로시설 순이었으며, 단기보호시설이 1.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에는 8기관 모두에서 2.0 이상의 노인요양보호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간병인은 상위 7개 기관에서만, 그리고 간호사는 상위 5개 기관에서만 2.0 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8개 기관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재가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요구가 가장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며, 집에서 모시면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휴식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해서 심해지면 이용하는 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까지 요구도가 높은 것(홍여신 등, 1994; 조남욱, 1996; 박연환 등, 1999)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중 외상노인가정에서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부분이 잘 충족된다면, 상대적으로 오래 노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 시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명희(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병인 전문교육기관과 병원자체에서 교육받은 간병인이 간호학원이나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간병인에 비해 업무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간호대학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관련 인력으로 재가 및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 및 일상가사 지원 담당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시 중요하게 인지되는 내용과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해 치매 또는 뇌졸중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 비교한 연구이다.

강원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의 치매, 뇌졸중 환자 가족 112명과 이들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98명의 간병인과 86명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총 296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 사이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인지되는 내용 중 수발 및 가사지원영역에서는 가족, 간병인, 간호사집단 모두 '식사보조', '배변보조', '배뇨보조', '시트교환', '침상관리', '체위변경', '목욕'과 '이 닦기, 세안, 세발 등의 개인위생'의 8항목이었으며, 이 중 체위변경이 2.39로 가장 높았다. 의학기초 영역에서는 3집단 모두 '노인 및 치매대상자 이해'와 '중풍, 관절염, 호스피스 등 노인성질병 이해'의 중요성이 높게 인지되었다.

소양교육영역은 3집단 모두 요양보호사 교육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이해',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시 주의점', '직업윤리', '환자의 권리이해', '노인과의 의사소통',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의 7항목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가 2.55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지역의 교육에서는 3집단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준 것은 '이상상태 파악 및 보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인지되었으며, 다음이 '노인복지이해' 항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가족과 간병인 그리고 간호사의 집단별 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발 및 가사지원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5$) 간병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하였으며, 간호보조 영역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였고, 소양교육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5$) 간호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의학기초영역의 교육의 중요성은 간병인의 인지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지역에서는 가족이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3그룹 전체가 응답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너싱홈, 외상노인가정, 가정봉사원과견시설, 양로시설 순이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그룹은 8 기관 모두에서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재가 또는 시설에서 치매 및 뇌졸중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봄자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과의 의사소통이 포함된 소양교육과 체위변경, 배변보조, 목욕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발 및 가사지원 영역의 교육을 특히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은 욕창 및 상처보조나 흡인보조와 같은 간호보조영역의 교육내용에서, 간병인은 체위변경, 식사보조와 같은 수발 및 가사지원영역에서, 그리고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의사소통이 포함된 소양교육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 교육시 재가 및 시설노인 그리고 가족과 간호사의 관점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뇌졸중 노인과 치매노인 각각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뇌졸중 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보호사에 게 기대되는 역할을 조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간협신보 (2008).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 4. 24).
- 간협신보 (200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간호대학·간호사 적극 참여해야 (07.11.22).
- 김금순, 서문자, 조남욱, 김인자 (2001). 재가와상노인 서비스제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4), 656-668.
- 박선영, 박영숙 (2007).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

- 식과 태도 및 노인간호 교육필요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1), 59-65.
- 박연환, 유수정, 송미순 (1999).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집단적지지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성인간호학회지*, 11(1), 119-133.
- 박효선 (1998). *뇌졸중환자 가족의 가족간호 이용경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백성희 (2007).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노인유사체험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1), 5-12.
- 성기연 (2005). *뇌졸중 환자 가족과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교육요구도 비교*.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 송명순 (1992). *종합병원 간병인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송미순, 공은숙, 김기분,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김희경, 노유자, 신경림, 안수연, 이경자, 이영희, 장성옥, 전시자, 조남옥, 조명옥, 최경숙 (2003). 노인간호학 교과과정 모형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3(3), 376-385.
- 안심생활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 2008년 6월까지 3만 4천명 양성계획 1, 18-19.
- 양윤정, 김정희 (2007). 요양시설 거주 노인이 지각한 간호 요구. *노인간호학회지*, 9(2), 115-123.
- 유수정, 김신미, 이윤정 (2004). 노인유사체험학습이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4(6), 974-982.
- 이경자, 공은숙,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김희경, 송미순, 안수연, 이영희, 장성옥, 전시자, 조남옥, 조명옥, 최경숙 (2004).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노인간호학회지*, 6(1), 125-137.
- 장병원 (2004).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전망. *2004년 노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5-24.
- 장옥자 (2003).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가 경험한 간병인의 업무실태 조사. *해전대학논문집*, 21, 429-454.
- 전귀숙 (2001). *간병인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4).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03.
- 정경희, 조애연, 오영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98-04.
- 조남옥 (1996). *치매환자 가족의 경험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조우현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발관리요원 양성과정 자료집*, 21-33.
- 주영희 (1994). *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의 유료간병인 이용양상과 만족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명희 (2005). *병원종별 간병인의 간병업무와 교육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연옥 (2002). *병원간병인의 역할수행정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향석 (2006).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실태와 간병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통계청 (2006). *2006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1994). 노인성치매 발생요인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3), 448-460.
- Dorsey, M. K., & Vaca, K. J. (1998). The stroke patient and assessment of caregiver needs. *J Vascular Nurs*, 16(3), 62-67.
- Penrod, J. D., Kane, R. A., Kane, R. L., & Finch, M. D. (1995). Who cares? The size, scope, and composition of the caregiver support system. *Gerontol*, 35(4), 489-497.
- Ragan, A. M., & Bowen, A. M. (2001). Improving attitudes regardi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for change. *Gerontol*, 41(4), 511-515.
- Stewart, M. J., Doble, S., Hart, G., Langille, L., & MacPherson, K. (1998). Peer visitor support for family caregivers of seniors with stroke. *Canadian J Nurs Res*, 30(2), 87-117.

The Level of Importance on Education of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Perceived by Caregivers of the Elderly

Cho, Nam Ok¹⁾ · Ko, Sung Hee²⁾ · Kim, Chun Gill³⁾ · Yang, Soo⁴⁾
Oh, Kyong Ok⁵⁾ · Lee, Sook Ja⁶⁾ · Jung, Yu Jin⁷⁾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4)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7)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evel of importance perceived by caregivers of elderly on the education of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LTCNAs) taking care of elders with dementia or stroke.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296 participants (112 families, 98 NAs, and 86 RNs) from October 2006 to February 2007.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Result:** The item of 'attitude while caring for the aged' was identified as most important. The family group reported that 'position change' and 'understanding of geriatric diseases' were the most important for education, while LTCNAs, highly identified, 'bathing', and 'bed sheet change'. The RNs group regarded 'position change', and 'bathing' as most important. Institutions demanding LTCNAs' activities were special facilities for elderly care and special hospitals for the aged, and the need was also high in families with an elder incapacitated by illness. **Conclusion:** Nurses need to take an interest in educatio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TCNAs and thus advanc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Key words : Dementia, Stroke, Health services for the aged, Educ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Chun Gill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9,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14 Fax: 82-33-248-2734 E-mail: kimcg@hallym.ac.kr